

44년 연속흑자 신화... 최윤범號 ‘트로이카 드라이브’ 본궤도

글로벌 톱티어 K-제련

고려아연

세계 최대규모 비철금속 제련업체
지난해 영업이익 1.2조... 역대최대
최윤범 회장, 글로벌 시장 중흥무진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은 희소금속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4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정도로 유일하게 불황을 모르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 등 희소금속을 대량 생산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불황을 모르는 기업

고려아연은 전통적인 비철금속 제련 사업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16억5851억원, 영업이익 1조2324억원을 기록하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항공 전경. (원형사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6%(4조 5283억원), 영업이익은 70.4%(5089억원) 급증했다. 전 세계 기초금속 융합 약화속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과다.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내적 역량 강화에도 성공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7.4%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하며 수익 구조의 고도화를 입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이같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고려아연이 아연을 기반으로 금·은·구리·인듐·안티모니 등 희소금속 회수 비중을 확대하면서다. 과거 고려아연은 아연·연·구리 등 기

초금속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안티모니·비스무트·인듐·게르마늄 같은 전략광물로 포르폴리도 다양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국내 산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듐을 공급하는 업체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시장에서 약 11%를 공급하고 있다. 안티모니는 지난해 6월 처음 미국에 수출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한 24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티모니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등 방위 산업 분야 필수 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통

해 핵심광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도 ‘에너지법 2020’에서 전략 광물로 지정했다. 중국이 전 세계 안티모니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으로 미국 수출이 막히면서 고려아연의 물량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 글로벌 시장 대규모 투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한 신사업 전략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이차전지 소재·자원순환 사업)’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자원순환 사업 자회사인 페달포인트는 2022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자원 순환 사업의 수익성을 증명했다. 페달포인트는 주요 금속을 함유한 전자폐기물 등 순환자원을 수거한 뒤 온산제련소 등에서 금속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페달포인트가 확보한 순환자원에서 핵심 광물과 희토류도 회수할 계획이다.

또 고려아연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광물 주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전략적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함께 약 74억

달러(약 10조 9000억원)를 투자해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을 생산하기 위한 통합 제련소를 미국에 짓고 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희소금속 시장에서 고려아연이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미국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MOU 체결에 따라 게르마늄과 갈륨 등 핵심광물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온산제련소에 신규 설비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게르마늄 역시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 온산제련소 고도화와 송도 R&D센터 건립,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중추 기업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금호석화, 전기차 소재 등 스페셜티 비중 확대

R&D 투자 확대·시장 맞춤형 대응 고부가 사업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앞으로 고부가 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시장 맞춤형 대응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 아래 전기차 핵심 소재인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SSBR)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SSBR은 타이어의 마모 저항과 연비, 내구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합성고무로 전기차의 높은 하중과 잦은 가속·제동 환경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된다. 지난해 연간 3만5000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했으며 해당 설비는 올해 1분기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 스페셜티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지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공장. /금호석유화학

난해에는 MDI 생산능력을 10만톤 늘리는 디보틀네킹(생산 공정 효율화)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20만톤 증설을 포함해 2년간 총 30만톤 규모로 생산능력이 확대된다.

금호폴리켄은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모노머(EPDM) 7만톤 증설을 마무리하며 연산 31만톤 체제를 구축했다. EPDM은 내열성·내기후성·내약품성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로 자동차와 선박, 산업 전반에 활용된다. 스페셜티 제품 확대와 공정 혁신을 병행해 수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구조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동과 유럽 등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송성 전환경 예폭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고부가 영역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성케미칼과의 합작사인 디앤케이 캠펙은 기능성 준불연·심재준불연 단열 소재 PF보드를 ‘휴그린’ 브랜드로 유통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비화학 부문에서도 경쟁력 제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호리조트는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각 사업 영역에서 축적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기술과 품질, 고객 신뢰라는 본질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가전업계 “에어컨 사전점검 받으세요”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기반 종합진단 LG전자 출장비·점검비 무료 혜택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고객들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회사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AI) 통합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고객이 쉽고 정확하게 에어컨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싱스에 에어컨을 등록한 고객의 스마트폰에 ‘에어컨 인공지능 진단’ 푸시 알림이 발송된다. 고객이 알림을 누르면 연동된 에어컨의 진단이 시작되며 ▲냉매 봉입량 ▲모터 동작 ▲센서 상태 ▲열교환기 온도 등을 종합 진단하여 결과를 안내해 준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공지능 진단 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에게 원격으로 제품을 점검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은 삼성전자서비스컨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출장비 무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LG전자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전문 엔지니어가 에어컨의 냉방 성능, 냉매 상태, 전원 및 배선 연결, 필터 및 배수 호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사전점검 신청은 LG전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출장비와 점검비는 모두 무료다.

LG전자는 ‘LG 스마트 체크’ 앱으로 제품을 무선으로 연결해 분해하지 않고도 부품을 제어하고 점검한다. 실시간 운전 정보와 과거 데이터까지 분석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 제어 솔루션 공개

AW 2026 참가... AI 팩토리 모델 등 전시

LS일렉트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자동화 전시회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 2026)’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S일렉트릭은 참관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70㎡ 부스를 마련하고 ‘AI로 공장은 더 똑똑하게, 산업은 더 안전하게’를 주제로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AI 팩토리 모델 ▲스마트공장 제어 솔루션

PLC 신제품 ▲AI 기반 산업 자동화 플랫폼 등을 공개한다. 전면에 배치되는 글로벌 데이터 표준 기반 AI 팩토리 패키지 모델은 공장 설비 데이터를 표준화·수집·통합한 뒤 AI가 이를 분석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미래형 공장 모델이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 최적화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성능 산업용 제어기(PLC) 신제품 ‘SU-CM70’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해당 제품은 기존 대비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해 PLC 1대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관희 기자

현대모비스, 차세대 제동 시스템 등 신기술 시연

글로벌 고객사 초청... 맞춤형 수수 나사

현대모비스가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고객사를 초청해 신기술을 공개하고 고객 맞춤형 수수 확대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주말부터 약 열흘간 스웨덴 동계시험장에서 신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 10여개 고객사 관계자 100여명

이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수수를 논의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신제품을 데모 차량에 탑재해 직접 주행 시연을 진행한다. 고객사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재해 성능을 평가하면 현대모비스는 이를 토대로 고객사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사마다 선호 사양

과 개발 방향이 다른 만큼 업체별 맞춤형 핵심부품 개발과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혹한 환경에서도 연구개발 중인 핵심부품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자율주행 센서와 제어기, 알고리즘 검증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